

전신주 사라진 해남읍 시가지… 푸른 하늘이 보인다

군, 지중화 사업 통해 도심 미관 개선·보행 환경 향상
명현관 군수 “군민 이해·협조…아름다운 시가지 변신”

해남군이 추진 중인 도심 전선지중화 사업이 눈에 띄는 성과를 거두며, 해남읍의 도심 환경을 한층 쾌적하고 안전하게 바꾸고 있다.

20일 해남군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본격 추진돼 온 해남읍 지중화 사업은 민선 8기 주요 공약사업으로, 도심 미관 개선과 보행환경 향상을 목표로 단계별로 진행되고 있다.

첫번째로 2021년 12월 청사 주변 구 광주은행~문화예술회관 700m 구간의 지중화 사업이 완료됐으며, 2022년부터 천변교~서림공원~주공1차~군청사거리에 이르는 해남중학교 통학로 1.81km, 문화원사거리~광남그린빌라~천변교 구간 북부순환로 450m 등 주요 도심 구간의 전신주와 통신선이 지중화됐다.

이 과정에서 총 200여본의 전신주가 철



해남읍 지중화사업 이전

거됐고, 군과 한국전력공사, 통신사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도심의 미관과 보행환경이 획기적으로 개선됐다.



해남읍 지중화사업 이후

특히 학생들의 주요 통학로인 해남중학교 일대는 전선이 사라지며 시야가 탁 트인 안전한 거리로 재탄생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보행로 확장과 인도·차도 구분이 명확해져 보행자 안전성이 크게 높아졌으며, 통학로 주변의 조명과 안내시설 정비로 군민 모두가 안심하고 걸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

군 관계자는 “어지러운 전선 대신 푸른 하늘이 보이는 거리로 바뀌면서 군민의 만족도가 매우 높다”며 “군민들이 공사 기간 중 교통 불편과 소음, 먼지 등 여러 어려움을 감내해 준 덕분에 이 같은 결실을 맺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군은 앞으로도 지중화 사업을 지속해 추진할 계획이다.

12월에는 101스퀘어~해남교에 이르는

300m 구간의 중앙2로 지중화사업을 착공할 예정으로, 도심 중심축인 중앙2로 일대를 정비하고 상가 밀집지역의 전선 혼잡 문제를 해소할 예정이다.

해남의 관문 역할을 하는 중앙2로 구간의 도시경관을 개선하고, 군민과 방문객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열린 거리’를 완성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명현관 군수는 “군민들의 이해와 협조 속에 해남읍이 점점 더 안전하고 아름다운 시가지로 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안전한 보행환경 개선, 도시경관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해남=성정수 기자 sjs8239@



영암군은 최근 목재문화체험장에서 개최한 ‘2025 대한민국 한옥문화 비엔날레’를 개최, 5만명의 방문객이 다녀가는 등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영암 대한민국 한옥문화 비엔날레 5만명 다녀가

주제 전시 등 인기… 전통혼례·K-한옥문화체험 등 눈길

영암군은 최근 목재문화체험장에서 개최한 ‘2025 대한민국 한옥문화 비엔날레’를 개최, 5만명의 방문객이 다녀가는 등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집은집: 달빛아래한옥’의 주제 전시관에서는 숨·살·섬으로 이어지는 한옥의 여정을 보여주며 건축물을 넘어 사람과 자연이 함께 살아 숨 쉬는 집, 한옥을 재

조명했다.

주제전시관인 월출관에서는 주말마다 ‘고영 명장과 함께하는 다례 체험’과 ‘성향예술단의 25현 가야금 공연’이 열려 관광객들에게 영암의 맛과 음을 체험하게 만들었다.

전통혼례식에서는 영암읍의 김정희, 전티미린 부부가 결혼식을 올렸다.

부부는 베트남에서 약혼한 후 10여 년 만에 자녀와 친인척, 이웃 주민들과 비엔날레 관람객들의 축하를 받으며 백마와 꽃가마를 타고 전통혼례를 올렸다.

특별전시가 열린 영암군립하정응미술관과 영암도기박물관을 방문하고 도장을 받는 스탬프투어도 인기를 끌었다.

스탬프투어를 완료한 관람객 1120명은 미션 수행의 부상으로 영암 농특산물을 받아갔다.

구립한옥스테이에서 운영된 ‘K-한옥

문화체험’은 한식다이닝, 디저트, 김치담기, 가드닝으로 구성돼 영암 관광 콘텐츠로 새로운 가능성을 열었다.

행사 기간 구림마을과 구림한옥스테이 등 한옥펜션, 대령의 셰프 현상현의 영암맛집 등의 예약이 꽉 차는 등 지역경제에도 훈풍이 불었다.

신환중 군 도시디자인과장은 “올해 비엔날레를 지역민의 협조로 무사히 마칠 수 있었고, 지역주민과 함께 성장하는 프로그램으로 이어나갈 계획이다”며 “내년에는 2027년 비엔날레 준비를 위해 공모전과 기본계획 수립 등을 착각 진행해 가겠다”고 말했다.

영암=한창국 기자 hck1342@gwangnam.co.kr

완도, 청년 공동체 사업 성과 공유

최우수 공동체 ‘파도파도 완도’ 등 3팀 선정

완도군은 최근 청년센터 ‘완생’에서 ‘2025년 전남형 청년 공동체 활성화 사업 성과 공유회’를 개최했다.

전남형 청년 공동체 활성화 사업은 청년이 지역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고 활동 기반을 마련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4개 읍·면의 5개 청년 공동체가 참여해 청년과 가족 대상 모래놀이 심리 상담(마음 그린 모래 놀이 팀), 완도의 역사·문화를 담은 콘텐츠 제작(파도파도 완도 팀), 업 사이클링 프로젝트(섬마을로 팀) 등 다양한 활동으로 지역에 활력을 불어 넣었다.

심사 결과 ‘파도파도 완도 팀(완도읍)’이 최우수 공동체로 선정됐다.

‘파도파도 완도 팀’은 아름다운 청

산도를 배경으로 한 컬러링 북을 직접 제작해 청산도만의 고유한 풍경과 정취를 그림으로 담아냈다. 또 색칠 놀이 체험 행사를 운영하며 완도의 아름다움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마음 그린 모래 놀이 팀(완도읍)’은 청년층의 심리 안정과 치유를 돕는 모래 놀이 심리 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해 우수 공동체로 뽑혔다.

‘섬마을로 팀(노화읍)’은 섬마을 청년 가족의 정서 지원을 위해 다양한 원데이 클래스를 기획·운영해 장려상을 수상했다.

‘파도파도 완도 팀’은 21일 열리는 전남도 청년 공동체 성과 공유회에 완도군 대표로 참가한다.

완도=김해국 기자 knk1831@



완도군은 최근 청년센터 ‘완생’에서 ‘2025년 전남형 청년 공동체 활성화 사업 성과 공유회’를 개최했다.



사단법인 한국건강관리협회 건강증진의원(광주)
Korea Association of Health Promotion

건강검진 어디서 받을까?

검진은 의료기관에서

예약문의 062)363-4040

<http://gwangju.kahp.or.kr>

